

* 지난주 강단제목 : 교회를 지킬 파수꾼의 기준과 복음 (수 1:5-6, 딤후 1:15)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압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서교독	68. 이사야 40장 (1) / 인도자와 회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희는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3-8)

찬송	270장.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오국환 장로 (2부) 정연규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3:15(구약 4쪽), 요한일서 3:8(신약 391쪽) / 인도자
찬양	(1부) 은혜로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내 영혼아 찬양해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8가지 절대망대의 비밀을 알려준 창세기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여동훈 장로 (2부) 박동영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사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박난순 권사 (오후) 임혜미 권사
인도, 설교	(오전) 박범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박인자 권사

(오후) 임혜연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청년부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사온찬양대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 2026년 하반기 전교인전도캠프가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에 다락방과 미션홈, 지교회가 회복되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 박범서 목사)
 * 본캠프 : 10월 7일(수)~8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 1층 비전홀.
- 추수감사절(11월 15일)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으신 후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 자녀의 유아세례를 회당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요일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프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의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현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현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말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0.9~11 제23차 세계군순교대회)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후보 14면에 있습니다.)
-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프부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트릭킵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해숙 권사 010-9430-9862)
 -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추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프부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모집 중)
 -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걸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3층 제2랩넌트실에서 있습니다.
3. 제1회 결혼선교예비학교가 '결혼은 증인의 사명현장(행1:8)'을 주제로 10월 5일(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세계RTS대회가 '회당에서 로마로(행19:8-21)'를 주제로 10월 6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5. 제23차 2026 세계군선교대회가 '고넬료에서 로마로(행10:45)'를 주제로 10월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6. 일본전도집회가 '환란을 최고 축복으로(행11:19)'를 주제로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7. 237화요제자훈련이 10월 20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오세아니아 랩넌트대회(9.30~10.1)
1주차	세례신청(4), 하반기 전교인전도캠프(7~8) / 결혼선교예비학교(5), 세계RTS대회(6), 제23차 2026 세계군선교대회(9~11)
2주차	강남노회 가을정기노회(12) / 일본전도집회(13~14)
3주차	세례교육시작(18) / 237화요제자훈련(20, 덕평 RUTC), 랩넌트데이(24)
4주차	종교개혁기념주일, 랩넌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5) /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산업인 특강(27~29, 독일 임마누엘교회)

10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배승찬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는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김경희A (6층) 배승찬 양경심
안내위원	(위원장) 임근일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야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걸-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여준석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궁이 김화권 호만수 최재경 박인자 임영순 김춘례 김영순 김일호 장소녀 전병조 유재숙 김순자 김미자 이은희 박희영 이순근 최송화 신혜선 이영순 김주영 김갑례 주철우-정선희 손병순 임소순 나경철-신현식 박숙자 김정연 윤소옥 여 명 정민호-이서은 김지수 한영화 정향란 양경아 조부영 조현지 홍경아 임혜미 이민형 방주은 이아연 김지후-이현주 최영국-김윤지 김태운 정수환 황혜주-이준영 박찬열 임혜연 최일숙 유승환-최아현 이미란 이상구-이정미 임경미 고진순 김소라 김영희 이연균 김승훈-김혜인 이민수-김숙희 한경숙 유영석 이효숙 고경훈 양은숙 김창균-임예진 채송아 안선희 배준서 전 진 권은희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최신영 김양순 송영희 정세완-박희영 정향란 신혜선 이영순 김지수 이정운-이순덕 정민호-이서은 김계자 유충현-강궁이 이명재-구윤진 양경심 정년영 임영순 주철우-정선희 여준석-양경아 배준서 여동훈 조성균-김갑례 정예송 안나근 최철규-한영화 오아라 방주은 김태운 이민형 박주은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김춘례 김승훈 이미자 이효숙 고경훈 임근일 양은숙 박동영 노은현 최송화 이 명 이은희 유경형-리종화 최신혜 권은희 유영석 최일숙 최보인 이세호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송화 김승훈-김혜인 최철규-한영화 김미자 양경심 박학규 박천재 문혜영 이영경 정민호-이서은 김순자 안영순 임혜미 김지후-이현주 이상구-이정미 김영희 최신혜 한경숙 박영인 이효숙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이 명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최신영 정민호-이서은 이은희 이영순 정년영 양경심 임영순 주철우-정선희 최신혜 이 명 최송화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임근일 양은숙 김승훈-김혜인 김순호 이상구-이정미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방주은 임혜미 조현지 조성균-김갑례 여준석-양경아 유경형-리종화 최일숙		
자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2026년도 총계 519,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최철규-한영화 정민호-이서은 양경심 임영순 주철우-정선희 최신혜 최송화 노은현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임근일 양은숙 김승훈-김혜인 이상구-이정미 정수환 유승범-주은경 조현지 조성균-김갑례 최일숙 여준석-양경아 무명		
장학헌금	정윤돈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송영희 주철우-정선희 정년영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이영순 최신혜 최송화 박지영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임근일 양은숙 김승훈-김혜인 김순호 이상구-이정미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김우진 조부영 여준석-양경아 유경형-리종화		
어학연수	정윤돈 이 명 정수환 조부영		
RUTC헌금	정윤돈 최신영 박범사-김진아 김원일-전인숙 주철우-정선희 정년영 최신혜 최송화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정수환 임근일 양은숙 김승훈-김혜인 이상구-이정미 여 명 조성균-김갑례 여준석-양경아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9. 22.~ 2026. 9. 29.)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121,793,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79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1,573,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71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5,000,000엔 (한화 3,960,500,000원 / 100엔환율=89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장삼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운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수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윤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정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조동범 이세호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유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지아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박천재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장영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앤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u>김숙희</u> 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교회를 지킬 파수꾼의 기준과 복음

여호수아 1:5-6, 디모데전서 1:15

들어가는 말씀 - 아르메니아 선교포럼

여러분의 기도과 헌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선교를 다녀왔다. 잠깐 선교포럼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활동을 스케치한 영상이고 두 번째는 아르메니아 예레반 주립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포럼한 영상이다. 예레반 주립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 6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중 4학년 학생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조회가 1만 건을 넘었다.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장에서 만난 램넛들과도 연결되고 팔로워도 100명 정도 늘었다. 10대 램넛 다섯, 여섯 명에게 “우리 친구하지?” 했더니 서로 퍼뜨려 많은 성도들과 연결되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하며 기도하려고 한다. 이번엔 곧 응답으로 만난 사람이 헨리라는 의사 램넛이다. 얼굴만 보면 50~60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0대 후반이다. 약 15년 동안 혼자서 본부 메시지를 들으며 신앙을 지켰고, 이번에 새로 완성되는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에서 부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의료가 많이 발전했으니 앞으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실습하고 의료기관끼리 협력하는 문도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곳 의대는 한국 의대에 비해 학비도 훨씬 적게 들고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 후대 램넛 중에서도 응답받는 사람이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한국과 의료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헨리 의사의 말로는 그 의대에 영국,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보니 그곳이 다민족 플랫포이며, 237개유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메니아는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가 걸릴 만큼 멀다. 그런데 헨리 의사가 곧 직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하나씩해서 ‘하늘 길도 여자는 구나’는 생각을 했다. 직항이 열리면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도 팀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번 선교에는 아홉 분의 목사님이 함께했고 세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했다. 현장에서는 한국어로 강의하면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다시 아르메니아어로 통역하는 삼중 통역을 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길고 힘들었지만 하루 정도 지나서 서로 호흡이 맞았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세계복음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레반 주립대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지내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었고, 복수전공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온 한국인 교수님도 계셨고,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메니아는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이다.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역사를 찾아보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다대오와 바돌로매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많이 기억하지만 다대오와 바돌로매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이름 없는 제자들이 조용히 산골짜기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명맥이 약 2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아르메니아 주변에는 러시아, 터키, 이란 등 여러 나라가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침공과 핍박, 학살을 겪었다.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다. 현지 목사님에게 들으니 고대 성서박물관이 있고, 미슈토즈라는 인물이 후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한다. 옛날 성경은 가족으로 만들어 매우 두꺼웠는데, 전쟁과 침공을 피해 도망할 때 금은보화보다 먼저 성경을 들고 피신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고대 성경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직접 박물관을 가보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천 년, 이 천 년 면면히 이어진 것은 후대와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전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로마도 처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약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다.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사 속에서 여러 공의회와 논쟁을 거치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등 여러 전통이 나뉘었다. 성령론의 표현도 서로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영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삼성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과 연결된다. 교회가 천 년, 이천 년 계속 이어지려면 모세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다음에 디모데와 같은 후대가 없으면 면면히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 다음에는 디모데가 중요하다. 모세와 바울은 시작했지만 여호수아와 디모데는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의 시스템을 이어간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도 후대가 중요하다. 1세대가 세운 교회와 복음을 후대가 지키고 성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AI시대가 되고 물질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해진다. 세상에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예배와 교회를 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것만으로는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같은 후대가 일어나야 한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학적인 기초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현장에서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세계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결국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하는 것이다(마 28:18-20, 행1:8).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

다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 교회와 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없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펄박 때문에 세계 약 100개국에 흩어져 산다고 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러시아, 유럽 여러 나라와 아르헨티나까지 친척과 친구들이 연결되어 있다. 아르메니아 한 나라에 있는데 오히려 세계의 문이 보였다. 앞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도 팀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흩어졌지만, 현지 목사님은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유럽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 흐름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역사를 단순히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 갔던 선교사님은 파리 공황에서 잠시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가방이 사라졌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물건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후대가 예배와 말씀에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교회와 현장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서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신앙생활의 기준과 복음의 내용을 알려준다. 특별히 오늘은 교역자와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지도자는 책임이 크다. 일반 성도의 잘못과 지도자의 잘못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도 말씀한다. 교회를 지킬 사람은 복음뿐 아니라 삶에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황제와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을 300%제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후대들은 다섯 가지 300%(말씀, 기도, 업, 배경, Time)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1. 교회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기준

1) 교역자가 지켜야 할 기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은 감독, 곧 영적 지도자의 기준을 말씀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딤후3:2)”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이다.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목회자나 성도는 없다. 누구에게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목표이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믿지 않는 왕과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영적 서밋이 되려면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후대들은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오늘을 쌓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앞으로 कै나 같은 아프리카 현장에도 갈 수 있다. 아프리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후대들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또 여기서 “단정하며”에 해당하는 말은 삶 전체가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고 행동과 태도가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상태를 말한다. 내적인 단정함뿐 아니라 외적인 단정함과 삶의 규모도 포함한다. 이런 아르메니아 선교에서도 한 사람의 목회자가 24시로 현장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다. 아르메니아를 담당하는 강환국 목사님은 여러 목사님이 왔으니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직접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샀다. 이런 것이 24시이며 삶의 규모이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강익수 목사님도 강의가 끝난 늦은 시간까지 자기관리를 하고, 말과 태도와 메시지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인다. 목회자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단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했다.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틀렸는지만 계속 판단하게 된다. 복음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자꾸 정죄하는 체질로 간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을 너무 빨리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고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는 식의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정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말씀과 예배 속에서 살아온 삶이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받고 믿은 안에서 자라며 복음이 체질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좋은 교역자, 좋은 목회자, 좋은 중직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서로 싸우실 때 아버지께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용서하고 싸우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셨다. 당시에는 이 말씀(딤후3:6)을 잘 몰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심지어 그런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만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체질이 복음체질이 아니라 율법체질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체질을 세우지 못한다. 아르메니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순수하고 착했다. 한 20대 램프가 자신의 글에 “반성을 많이 하는 것만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적어 놓기도 했다. 현지 목사님 중에는 죄가 작으면 작게 회개하고 죄가 크면 크게 회개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자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마5:29-30)”라고 물었다. 이후 그만큼 죄를 조심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문제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서 빛을 갈을 수 있다고 일부러 빛을 내는 것은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 말씀과 예배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강단메시지도 하는 착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찾아야 한다. 내가 도전해야 할 말씀,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응답받아야 할 말씀 한 마디를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단에서 70나라, 70민족, 70제자, 70현장이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나는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로서 최소한 70나라는 가야겠다고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선교이야기가 들리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저도 데려 가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묻게 된다.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다면 “대단하시네요”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237치유서밋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의사를 만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헨리 의사 옆에 앉아 앞으로 병원과 치유사역, 의대와 한국의료의 교류를 계속 이야기했다. 미리 말씀을 내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현상은 온 응답이 내 것이 된다. 강단메시지를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한단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한다. 우리 후대와 모든 지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의 규모, 영적인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중직자가 지켜야 할 기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기준을 말씀한다. 당시 집사는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임이요”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고 했다. 감독에게 요구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직하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부족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빛이 되어야 한다. 또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정중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복음, 강단메시지에서 은혜 받은 것,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해야 하지만 불만과 불평,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했고,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이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했다.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때 복음을 전하는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기준으로 완벽하게 사는 목회자도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중직자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절대목표이다.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디모데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영적 제자로 변화되어 간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복음과 그리스도

1) 율법의 목적과 복음적인 삶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 있다(골2:3). 디모데전서 1장은 먼저 율법과 복음적인 삶에 대해 설명한다. 교역자는 복음과 율법의 목적과 역할을 성도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에베소의 유대교 선생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0절에 나온다. 아르메니아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현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강의가 끝난 뒤 밤 9시,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질문하고 포럼했다. 삼중 통역을 하면서 하신다 설명했다. 성도들이 400~500명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복음을 설명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현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고 말씀한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문제는 율법을 악용하여 사람을 헐박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용해 자기 조직을 강화한다. 예전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몇 번 빠지면 지옥에 갑니까? 율월절을 몇 번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착해야 천국에 갑니까?”라고 물었는데 분명한 기준을 대답하지 못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헐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적인 삶의 진정한 목표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성도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2)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오늘의 본문이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사역의 중반기에 기

룩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전15:9)”라고 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사역의 후반기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 복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이 지키지 못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할 수 없다.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을 누릴 때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는 말씀이 실제 삶 속에 되어지기 시작한다.

3)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열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한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여기 있는 사람 중 가장 착한 사람, 심지어 죄가 없어 보이는 어린이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자기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요 19:30).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도 모르고 실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다. 다만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삶을 향해 계속 도전해야 한다. 이번 선교도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로님들이 헌신한 것으로 함께한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고, 여전도회에서도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 또 서해안 선교사님이 비행기 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출발 전에 후원을 준비해 갔는데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알고 준비해 오셨느냐”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대표로 가는 것이지 교회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반드시 현장에 가보기를 바란다. 영상으로 아무리 보고 설명을 들어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과는 다르다. 선교는 돈과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내 인생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다”라는 언약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말씀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결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여호수아처럼 교회를 지키는 절대 과수꾼으로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 237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찬만 제자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먼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웅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